

## 일본은행 단칸 결과, 제조대기업 업황지수는 시장 예상치 상회

### 1. 단기전망 주요 결과

- 2024.9월 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조사\*(이하 '단칸') 결과, 대표지표인 제조대기업 업황 판단지수(DI; 좋음-나쁨)는 전분기와 동일\*\*한 13%p로 시장 예상치(12%p, Bloomberg)를 상회(24.3월 11%p → 6월 13%p → 9월 13%p)

\* 대상기업: 9,038사, 회수율: 99.2%, 조사기간: 8.27~9.30일

\*\* 전기기계(24.6월 1%p → 9월 11%p), 조선·중기(14%p → 23%p), 금속제품(3%p → 11%p) 등 전체 16개 업종 중 8개 업종은 상승하였으며, 석유·석탄(17%p → -9%p), 식료품(21%p → 15%p), 자동차(12%p → 7%p) 등 7개 업종은 하락

- 비제조대기업 업황 판단지수는 1%p 상승\*한 34%p(시장예상치 32%p)로 높은 수준 지속(34%p → 33%p → 34%p)

\* 소매(24.6월 19%p → 9월 28%p), 건설(25%p → 31%p), 사업서비스(40%p → 45%p) 등 전체 12개 업종 중 5개 업종에서 상승

- 소규모·소산업 업황 판단지수\*는 2%p 상승(12%p → 12%p → 14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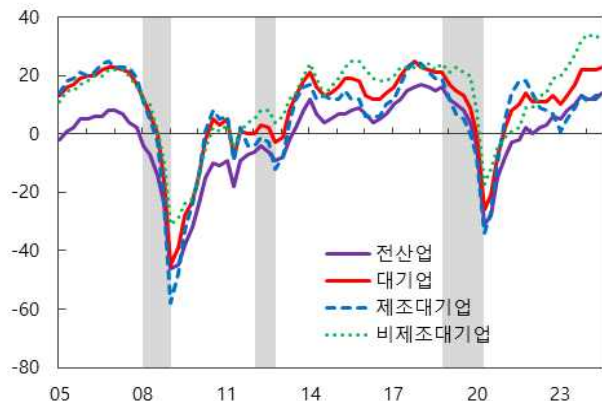
\* 제조업(24.6월 5%p → 9월 5%p), 비제조업(19%p → 20%p)

- 3개월후 제조대기업 업황 전망지수는 14%p로 현재(13%p)보다 상승

- 소규모·소산업 전망지수는 11%p로 현재(14%p)보다 하락

업황 판단지수<sup>1)</sup>(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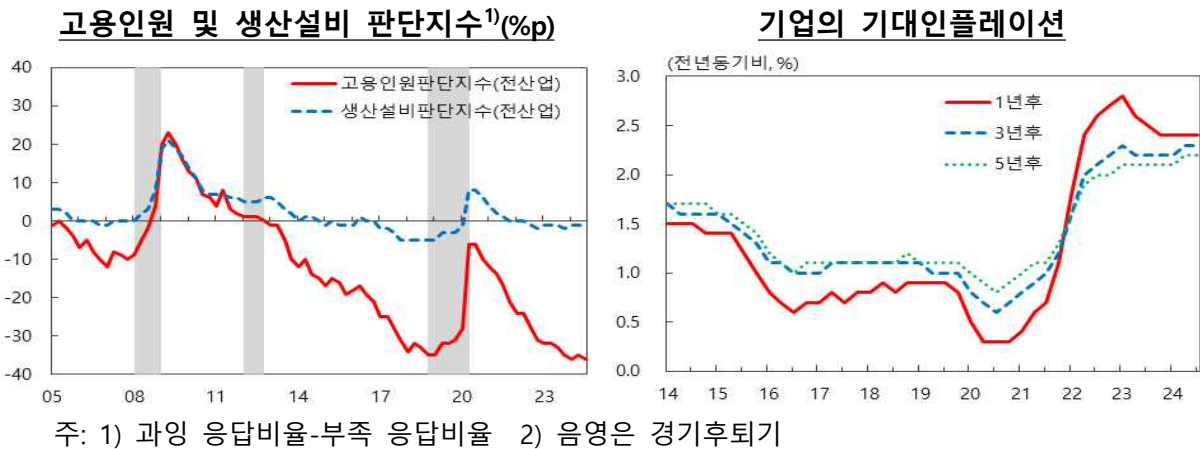
	24.6월	24.9월	
	실적	실적	전망 <sup>2)</sup>
< 대기업 >	22	23	20
제조업	13	13	14
비제조업	33	34	27
< 중견기업 >	16	16	13
제조업	8	8	9
비제조업	22	23	16
< 중소기업 >	7	8	6
제조업	-1	0	0
비제조업	12	14	11
< 전체 >	12	14	11
제조업	5	5	6
비제조업	19	20	15



주: 1) 좋음 응답비율-나쁨 응답비율 2) 3개월 후 전망치 3) 음영은 경기후퇴기

작성자 : 동경사무소 최재혁 차장

- 고용인원 판단지수(과잉-부족, 전산업 24.6월 -35%p → 9월 -36%p)는 하락하였으며 3개월후 전망치(-40%p)도 현재보다 하락
  - 생산·영업설비 판단지수(과잉-부족, 전산업 -1%p → -1%p)는 전분기와 동일하고 3개월후 전망치(-3%p)는 현재보다 하락
- 2024년도 설비투자계획액 증가율(토지 제외, 소프트웨어·연구개발 포함 전년비)은 10.1%로 2023년도(9.4%) 대비 증가
  - 대기업(8.4% → 11.1%)은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(10.6% → 9.3%) 및 중소기업(13.4% → 5.9%)은 감소
-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(전년동기비 소비자물가상승률)은 1년후(24.6월 2.4% → 9월 2.4%), 3년후(2.3% → 2.3%) 및 5년후(2.2% → 2.2%) 모두 전분기와 동일
  - 판매가격 전망(현재수준대비 상승률)은 1년후(2.8% → 2.8%) 및 3년후(4.1% → 4.1%)는 전분기와 동일한 반면 5년후(4.8% → 4.9%)는 상승



## 2. 시장 반응

- 주요 언론 및 시장참가자들은 해외 제조업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IT관련 수요\* 등으로 제조업 업황이 보합세를 유지한 평가(로이터, 다이이치생명 등)
  - \* 전기기계 업종이 10p(1%p → 11%p)상승하여 제조업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
- 비제조업의 경우 가격전가의 진전이 업황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
- 한편 조사기업의 2024년도 하반기 상정 환율은 144.59엔(6월조사)에서 144.31엔(9월조사)으로 소폭 하향조정에 그쳤는데, 향후 엔고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